



# 삶을 나누는 공간 더불어 숲

#울산 동구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 삶을 나누는 공간 ‘더불어 숲’

우리나라 대표적 지식인 신영복 선생님의 저서 『더불어 숲』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존과 연대, 새로운 인간주의’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가르침은 도서관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공간 더불어 숲에 방문하시면 신영복 선생님께서 직접 써서 보내주신 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삶이 고단할 때 한번쯤은 ‘더불어 사는 꿈’을 가져보기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책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숲’은 모든 사람들의 꿈과 생활을 나누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북카페에서 시작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마을에 자리잡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살기를 고민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숲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맨 먼저 나라는 나무에서 벗어나 내 옆의 나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옆에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본다면 시야가 점점 트이게 됩니다. 나를 통해 밖을 더 넓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더불어 숲이고자 합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삶을 나누는 공간 더불어 숲의 2017년은 어떠 했나요?



긴급지원119로 진행한 도시가스 설비는 함께 밥 먹는 더불어 숲에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설비팀이 공사를 위해 몇 번 다녀가셨고, 공사 당일에는 일찍 오셔서 평소보다 2시간 더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냈지만 도서관 문 여는 시간 전에 마무리되어서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의 도움도 컸습니다. 메인 컴퓨터와 노트북은 도서관의 중요한 기자재 구입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운영위원 분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이 계셔서 많은 조언을 얻고, 가격비교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구입하고 프로그램 설치까지 담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자는 도서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에 구입에 더 신경을 기했습니다. 의자교체를 위해 타 작은도서관, 북카페, 커피숍도 방문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번의 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결정 후, 기존의 의자를 철거하고 새 의자를 조립,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 숲 공간은 더 예뻐졌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의자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오후에 부랴부랴 도서관 밴드에 의자 조립과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서관 긴급요청 119가 발효되었네요. 1시간이 지난 후 전동드릴과 공구를 갖고 달려와 주신 분들, 참석은 못하지만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더운 날 수고한다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변화된 더불어 숲을 보며 모두들 분위기가 한층 더 아늑해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모여 함께 밥 먹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도 보고 강연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에 대한 의미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변화를 통해 도서관 분위기가 많이 변하여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 좋은 첫인상을 주고, 도서관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연말 송년회 진행 및 장기자랑 등에서도 많은 분들의 재능기부가 있었습니다.



이용만 하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행사 및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생겼습니다. 더 좋아진 도서관의 면면을 계속 유지발전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삶을 나누는 공간 더불어 숲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 더불어숲 작은도서관의 목표는 ‘일상적인 참여로 내 삶을 바꾸자’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의, 식, 주를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의 :** 도서관 이용자들 중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작아진 옷들과 아이들 물품을 나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다양한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식 :** 긴급지원119사업으로 도서관에 도시가스 설비를 마련했습니다. 공동부엌의 개념으로 반찬나누기, 아이들 간식, 친환경 먹거리 등 혼자서 하기 힘든 음식 만들기과 안전한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 합니다.

**주 :**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려 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공동체 주택, 쉼어 하우스 등에 대한 관심과 공부와 함께, 건강하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 삶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통해 의식주, 교육, 삶이 함께 공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이 힘이고, 재산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은 활동가들이 가장 큰 힘이고 재산입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는 것만큼 힘들지만 멋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파이팅입니다.